

[성 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
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
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
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 40:31)



계신총회보

발행처: 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총회
주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229-1
우편번호: 12736
발행인: 박세덕
편집인: 윤성천
전화: 031-768-1980
팩스: 0303-0944-2936



제45회 교역자 수양회



제45회 교역자 수양회가 강원도 원주 치악산 명성 수양관에서 2월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 있었다. 24일 저녁 고석남 목사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1-33)는 제목의 설교를 시작으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행 1:4 김형곤 목사),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의 죄”(말 1:6-8 홍진욱 목사), “광야 교회의 설립”(출 3:13 박세덕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참석한 150여명의 교역자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기뻐하였다.

유준광 목사는 식사 운영 관련하여 예약 숫자보다 실제 식사 인원수가 현저히 적어 약 7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고 차기 집회시에는 식사 여부를 정확히 밝혀주실 것을 광고하였다.

수양회 기간 중 26일(수) 제 203회 목회연수회를 개최하여 신입원으로 회장 윤화현목사, 서기 최요승 목사, 부서기 강희정 목사, 회계 이나라 목사, 부회계 이흥구 목사가 선임되었고 김준호 목사가 경조부 회계로 유임되었다. 흥한기 목사는 카자흐스탄과 블라디보스톡, 우크

라이나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유영길 목사는 중국지도자 초청 선교 대회(의실무)를 맡아 진행 배경과 예정 일정에 관하여 보고하고 기도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김형곤 목사는 오산원동교회 김지명 목사의 수술 관련하여 예상 비용이 최소 일천만원 이상인 것을 보고하였고, 김정경 목사는 소망그루터기교회 정숙현 사모(송인석 목사)의 신우신염 수술 후 치료과정인 것과 수술비 4백만원이 지출됨을 보고하였다. 박항우 목사는 김지명 목사에게는 최소 1천만원, 정숙현 사모에게는 4백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작정하자는 의견을 말하고 의장이 가부를 물어 연보를 작성한 결과 28,150,000원이 작성되어 상기대로 지원하고 남은 금액은 추후 지원하기로 하였다.

각 교회의 어려운 형편에도 힘써 작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단 산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이다.

〈기사 최요승 목사〉



박세덕 목사
명륜교회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매너리즘(mannerism)이란 자기의 상태를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늘 하던 대로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변화와 진보가 없습니다.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 속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태 인지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자들이었으며 스스로를 알지 못한 자들로서 매너리즘에 빠진 자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을 말씀으로 고쳐 주셨고 자신의 상태를 비로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받으시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전 인류역사상 단 한 번만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한 번으로 완전충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예수님을 제대로 증언하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

매너리즘에서 벗어나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회장 박세덕 목사

선교 세미나 개최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서울 명륜교회에서 총회 선교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증경총회장 유영길 목사는 2024년 하반기 선교 지역을(?) 순회하게 되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사명감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그들을 말씀으로 재무장 시키고 사명감을 회복시켜서 다시 목회 일선에서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 선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유영길 목사〉

총회 5월 사경회 공고

금년 5월 사경회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모든 성도들은 힘써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 장소:** 명륜교회
- 기간:** 2025/5/5(월) 오후 7시부터 5/8(목)오전 11시 예배까지
- 숙박:**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바람 (4월 30일까지)
- 식사:** 점심식사는 명륜교회에서 제공
아침식사는 목회자만 간편식으로 제공
- 주차:** 총 100대 가량 가능
안쪽 주차한 경우 먼저 출차 불가능

계약신학연구원 신학생 모집

입학생 전원에게 100% 장학금 지원
www.kyeyak.co.kr

개혁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신학	문의처
성경을 바르게 깊이 있게 배우는 곳	입학 상담 010-3790-0159(유신승 간사)
영성과 지성과 인격을 갖추어	진로 상담 010-8781-7471(이용주 위원장)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는 길	신앙 상담 010-6779-5314(홍진욱 원장)
	지원 자격 고졸 및 동등학력 이상 수세 후 3년 이상 된 자 당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설교

마음 문을 열이라

요한계시록 3:14-22

"누구든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김정경 목사
우신교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역자를 찾아오셔서 간곡하게 문을 두드리시며 이르신 말씀입니다.

1. 내가 네 행위를 안다.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심령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말해 주듯이 사역자와 교회의 내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경도 있고, 예배도 있고, 교리도 있고, 찬송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는데 내면의 상태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의 생명이시며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열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2.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교회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할 만큼 모든 면에서 잘 갖추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사역자와 직분자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열심을 내라!" 하심은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며, "회개하라!" 하심은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는 내면을 부요하게 하는 불로 연단한 금도 있고,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흰옷도 있으며, 영안을 밝게 하는 안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린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문밖에 서서 문 열어 주기를 바라며 간곡하게 두드리십니다.

새찬송가 535장:

1.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 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밖에 세워 두니 참 나의 수치라

2.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관은 그 이마 돌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 두니 한없는 내 죄라

3.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네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나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문을 두드린다" 하심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함께)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즉, 사역자든지, 직분자든지, 일반 성도든지, 미지근하든지, 곤고하고 가련하든지, 가난하든지, 눈멀고 벌거벗었든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면 빛이 들어오고, 창을 열면 맑은 공기가 들어오듯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시며,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시고,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십니다(14절).

주님이 들어오시면 불로 연단한 금도, 흰옷도, 안약도, 생명도, 빛의 갑옷도 함께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피로 회개 씻어 주시는 분이시며, 맹인의 눈을 밝히셨던 주님이 우리의 영안도 밝혀 주십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만 하면 들어오십니다.

4.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22절: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말씀을 알아듣는 영의 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하신 복된 말씀을 성령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1) 성도의 몸은 삼위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후 13:5"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골 1:27"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고(고전 3:16; 6:19),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후 6:16-18"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2)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몸이 성전임을 지식으로 알아도, 우리 안에 계심을 알아도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미지근하고, 심령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기쁨과 평화가 없고, 지쳐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참 빛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참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쉼을 주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죄악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하시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나타내게 하시며 •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3) 마음을 열면 주님과 더불어 먹으며 함께 교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살전 5:10"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고전 1:9). 이렇게 되면 주님과 목마름이 사라지고, 새 생명이 넘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찬송가 539장 4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찬송가 420장: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잘못을 했어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도,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들어오시고, 더불어 먹고, 더불어 교제하며 살게 하십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함께 인생길을 가는 것이 즐거운 일 아닌

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송가 29장 2절: "맘 문을 열이라 할렐루야 아멘!"

4) 주님과 더불어 살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십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유치부 아이도, 유년부 어린이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장년부도, 교회 출석이 어려운 노년도, 병원에 누워 있는 환자도,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천국 들어갈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향해 마음을 열면 몸은 이 땅에 있어도, 심령은 주님의 세계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십니다.

그 세계는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고, 기쁨과 참된 평화가 넘치며, 빛과 사랑이 언제나 충만합니다. 출 24장"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합니다."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생활을 합니다.

험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계속 돌이키고, 세상과 유혹과 방해 세력과 싸우며 실패했을 때도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생활을 합니다.

찬송가 491장 4절: "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불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웁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곧 천국 생활이며, 후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는 수업이기도 합니다(계 20:4).

예수님은 우리와 지상 교회들이 주님과 더불어 먹으며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금 촛대인 교회 사이를 다니시며 주님을 믿으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성도들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내시고, 주님께로 열심히 돌이키시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셔서 주님과 더불어 생활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왕 노릇 할 준비를 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

논 단



행위 언약

오직 예수님만이 행위 언약을 완성하심

김은택 목사
예담교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마음에 율법(도덕법)을 새겨 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을 '양심'이라고 합니다(롬 2:15).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은 타락 후 희미해졌기 때문에 이후 십계명으로 요약되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됩니다.¹⁾

도덕적 피조물인 인간과 천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할 절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도덕적 피조물로서 마땅한 것이며, 온전히 순종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과 상급을 주실 의무는 없습니다(눅 17:10).²⁾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천사에게도 주시지 않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언약도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피조물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적인 면이 있지만,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언약의 축복(즉, 영생)에 참여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 즉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 언약은 창 2:17절에서 드러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7)"

위의 말씀은 창조 때 주신 마음에 새긴 도덕법을 불순종하면 벌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율법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십계명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자기 자신과 마귀와 선악과를 다른 신으로 섬기는 1계명을 범하는 죄"를 지었고, "선악과를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은 2계명을 범하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욕되게 하는 3계명을 범하는 죄"를 지었고, "에덴동산에서의 거룩한 안식의 상태를 지키지 못한 4계명을 범하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5계명을 범하는 죄"를 지었고, "자신과 모든 인류를 죽인 6계명을 범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으로 간음한 7계

명을 범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도둑질한 8계명을 범한 죄"를 지었고,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찬성한³⁾ 9계명을 범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탐낸 10계명을 범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행위 언약과 선악과가 없어도 율법을 어기면 죽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어도 마귀와 귀신들은 범죄 후 영적으로 죽었습니다(하나님과의 단절).⁴⁾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에게만 순종에 대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의롭게 창조되었지만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고 아직 영생을 얻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행위 언약의 복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끝나지 않을 육체적인 생명과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과의 관계(영적 생명)를 가리킵니다. 즉, 영생의 축복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요 17:3).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사실도(창

2:9) 완전한 순종에 대한 복이 영원한 생명임을 상징합니다. 행위 언약에 약속된 복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2항은 행위 언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서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와 그리고 아담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정리하면 행위 언약은 율법 언약으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요약하면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영생하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서는 이 행위 언약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레 18:5)."⁶⁾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볼 때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마 19:16-17 -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행위 언약 아래서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범죄한 적이 없는 의인(자격)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능력, 즉,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행위 언약의 복이 아닌, 저주 아래(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행위 언약을 깨뜨린 것은 원죄이며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책(신분)과 온 성품의 부패(상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타락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책을 가지고 있어서(시 51:5; 롬 3:10)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고(엡 2:1) 육신도 일정 기간 살다 죽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온 성품의 부패(전적 부패)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행하지 못하고 일평생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자범죄를 짓습니다(롬

8:7). 그래서 죄책을 더합니다. 죄책은 자격 없음, 부패는 능력 없음을 드러냅니다(도덕적 무능력).

타락한 죄인이 행위 언약에 약속된 영생을 얻으려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죄책으로 인한 법

적 형벌(율법의 저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둘째, 온전한 율법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를 이루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죄 밖에 지을 수 없는 전적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롬 8:7; 3:20).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의 저주(행위 언약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 3:13)"

또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율법의 입법자이시며, 세상을 심판할 재판장(약 4:12)이시므로 율법 순종의 의무가 없으시지만, 율법 아래 나서서(4:4) 참 사람으로서 율법 순종의 의무를 몸소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며 의와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이르렀느니라(롬 5:18)"

인류 역사상 오직 한 사람만이 행위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며(롬 15:45, 47) 택자의 대표로서 행위 언약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행위 언약의 복인 영생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공로를 주셔서 값없이 은혜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며, 성령을 통해 율법을 그의 마음에 새겨 순종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행 16:31; 렘 31:33)이 은혜 언약이며 은혜 언약에 나타난 복음 진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3항은 은혜 언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둘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되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자발적으로 믿고자 하며, 또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한 죄인들에게 은혜 언약을 통해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 대표로서 행위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여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가져오셨습니다.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1-2항. 참고.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1항.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춰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상급으로서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3)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45문답 :진리를 외면하고.....악한 소문을 받아들이고 찬성하며.....
4) 율법 불순종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요, 인간의 죽음은 영적 죽음(하나님과의 단절), 육체적 죽음(영혼과 육신의 단절), 영원한 죽음(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지옥 형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2문답. 답12.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써 금하셨습니다."
6) 물론 모세 율법은 은혜 언약 아래서 주어졌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율법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게 하시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장로회

160여단 충성교회 헌당 감사예배 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군 복음화의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졌다.

2025년 2월 22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시 안재흥1로 18-11에 위치한 169여단 충성교회에서 헌당 감사예배가 엄숙하고도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된 새 성전이 오직 기도와 예배를 위해 거룩하게 쓰이기를 간구하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목회자·장로·성도·전 51보병 사단장을 비롯한 군 장병 등이 참석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1부 예배는 송탄북부교회를 담임하시고 충성교회를 사역하시는 이용주 증경총회장 목사님의 인도로 시작됐다. 장병들과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 이후, 특수전사령부 사자교회 전준택 목사가 대표기도를 하고 이어 강무일 목사(51사단 전승교회)가 느헤미야 13장 4~14절을 본문으로 '리빌딩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하며, 성전의 거룩한 사명과 헌당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이동재 목사(17사단 군선교사 회장)의 봉헌기도와 김형곤 목사(경기노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가 마무리됐다.

2부 헌당식도 이용주 증경총회장 목사님의 인도로 먼저 충성교회 서진규 집사가 성전 건축 경과를 보고하며, 공사 과정

전반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헌신을 설명했다. 강우일 목사의 봉헌선포 직후 계신총회장로회 장로들이 준비한 축가로 새 성전 봉헌의 기쁨을 고조시켰다. 이어 장광현 사단장, 박동일 참모장, 홍길동 여단장이 축사를 전해 군 선교 현장에서 충성교회가 감당해야 할 소명을 강조했다. 한덕수 광흥교회장로(누가선교회 회장)는 "충성교회가 장병들에게 신앙의 중심이 되어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흥한기 목사(계신총회 선교부장)의 축복기도로 헌당식이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이날 헌당식에 참석한 교역자·장로·성도·군 관계자들은 새 성전 완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군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재확인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169여단 충성교회가 기도와 예배가 살아 있는 거룩한 제단으로 굳건히 서, 군 선교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많은 장병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등불이 되길 소망한다.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는 마음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전해졌다.

〈장로회 총무 김동완 장로〉

동서울노회

진성교회 피해 상황



동서울 노회 임원진(노회장 조충연 목사, 서기 유성민 목사, 회계 전설태 목사)은 지난 3월 6일(목) 발생한 포천지역 '전투기 오폭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성교회(인성 목사)를 3월 11일(화) 방문했다.

교회 주변에 떨어진 여러 발의 폭탄 폭발 사고로 인해 교회와 사택 그리고 식당과 교회 차량 등이 파손되었고, 특히 심한 곳은 식당과 사택으로 지붕이 내려앉거나 벽에 금이 가는 등 전체적으로 많은 손상을 입은 상황이다.

목사님과 가족은 아직 사택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에서 마련한 임시 처소인 군 아파트로 이주해서 생활하는 중이고, 최소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주일 예배는 부득불 오전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보상 관련해서는 공군 측과 주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방부가 아닌 행안부 소관으로 이관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절차상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기도 제목으로는 이번 폭발 사고로 인해 성도들 가운데 심리적 트라우마와 몸이 아픈 분들이 있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셨고, 교회와 사택, 식당 등 건물의 복구가 빨리 이루어져서 예배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과 성도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기사 유성민 목사

충청노회

복용교회

박석중 목사 은퇴 및 김희신 목사 담임목사 취임



대전 복용교회는 2025년 3월 2일 주일 예배 중 박석중 목사의 은퇴와 김희신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을 함께 진행하였다. 별도의 이·취임식 없이 드러진 이날 예배에서, 김희신 목사는 마태복음 5:13-16을 본문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복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강조하였다.

이어 고석남 목사(증경총회장)는 요한복음 21:15-17을 본문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는 맡겨진 양 무리를 사랑으로 섬겨야 함을 강조하였다. 박석중 목사는 은퇴 인사를 통해 교회를 향한 감사

와 축복의 마음을 전했으며, 복용교회 2남선교회와 3여선교회는 특송 '우릴 사용하소서'를 통해 헌신의 뜻을 모았다.

앞서 박석중 목사는 2024년 11월 17일 당회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은퇴 의사를 밝혔으며, 교회는 12월 15일 청빙위원회에서 당시 부목사로 시무하던 김희신 목사를 담임목사 후보로 추천하였다. 12월 29일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196명 중 찬성 181명(92.8%)으로 청빙이 가결되었고, 이후 충청노회(1월 3일)와 상임위원회(1월 8일)의 인준을 받아 김희신 목사는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기사 김희신 목사〉